



세계속의 한국, 그곳엔 농업이 있다

⇒ 단합, 그것은 우리의 경쟁력

지난 2003년 12월 미국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금수조치가 취해진 2년 만인 지난 1월 13일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재개가 합의되어 오는 3, 4월이면 수입쇠고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식탁 점령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축산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 산지가격의 폭락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가들 또한 서둘러 시장에 내다팔고, 사육두수를 줄이는 등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우산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육우산업에 대한 말은 어디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육우라는 산업자체가 정부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산 수입육과의 경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없는 한 회복할 수 없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선 첫째로 협회를 중심으로 육우농가 결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로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2006년을 육우자조금 사업의 원년으로 만들어 육우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농업, 반드시 지켜야

미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한·미 FTA협상의 전초가 될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실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이 농업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가뜰이나 우리나라 농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실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이 어떠한 여과도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농업은 전 분야에 걸쳐 초토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과 FTA 체결 시 국내 총 농업 손실이 2조에서 8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이 중 축산물 손실이 7,835억원, 우유 및 낙농제품 손실이 2,042억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식량 자급률이 저조한 지금의 형편을 고려할 때 식량산업의 자주 노선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현 시대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올해만 해도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FTA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산품에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쌀 협상결과 금년부터는 일정량의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될 것이라 한다. 다시말해 쌀 산업도 외국산 쌀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인 쌀이 무너지면 제2의 식량인 우유도 안전치 못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진리(?)이다.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할지라도 농업을 불모로 하는, 농업을 고사시키는 협상은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을 보노라면 공산품을 위해 농산물은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농업은 서서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토가 없는 도시화 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자. 쌀 한 줌, 우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생각만해도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올 것만 같지 않은가!

농업은 과거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모태와도 같은 산업이다. 이런 농업을 버리면 언젠간 대 재앙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이다. 농업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지켜 나가야할 국책사업이다. ☺